

# 전북자치도, 미국 식품시장 두드린다

### 미국 H마트 바이어 초청 일대일 수출상담... 미국 시장 트렌드 분석·진출 전략 세미나 함께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우리도 농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 H마트 현지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022년 9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미국 방문 시 H마트와 체결했던 전북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이후, 우리도 농수

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 조치 중 하나인 셈이다.

상담회는 농특지 식혜 김부각 참기름, 치즈 떡 등을 생산하는 도내 농식품 업체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에 농식품 기업 상품정보를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관심있는 농식품 기업 및 상품을 직접 선보였다.

H마트는 2024년 연내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45만불(약 6억원) 이상 거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북 지역 식품의 미국 내 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틀간 상담회 기간 중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 분석 및 시장 진출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식품업체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조건과 권고 사항 등

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전략을 직접 제시했으며, 질의응답에는 도내 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린 실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력국의 거점 유통망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전북 농식품을 세계로 더욱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3일 정읍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0호를 조성했다.

## 'NH교실숲' 제 10호 조성

### 농협은행 전북본부, 친환경 교실 만들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23일 정읍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 10호를 조성했다.

이날 이정환 본부장 이재연 정읍시시장, 김성호 정읍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교실숲 제10호' 현판식을 갖고 12학년 210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2급식물인 파초잎 210여 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공기정화 식물을 교실에 두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반려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손수 식재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하는 친환경 ESG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공장에

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되었으며 환경교육 키트를 통해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주)트리플레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 학교에 제공한 210그루의 공기정화식물만큼 1-for-1사업을 통해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210그루를 양육하여 친환경 숲가꾸기 사업을 이어간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만들어가는 NH교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조재호 농진청장, 천안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 방문

### 초등생들과 텃밭 채소 수확·채소꽃다발 만들기 활동 살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농수초등학교를 찾아 충남형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조 청장은 도 교육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학교 관계자와 함께한 차담회에서 "농업·농촌 체험 활동이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 성과가 있다"라며

"앞으로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품질을 높여 늘봄학교 정착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음챙김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2022년)은 우울감 56.8%, 불안감은 36.4%내리고 자기효능감은 11.5%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날 조 청장은 3~4학년 초등생들과 학교 텃밭에서 기존 채소를 수확하고, 채소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 등을 소개했다.

/김옥기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2일, 천안시에 있는 천안농수초등학교를 찾아 농촌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4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23일 '2024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20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과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전북과학대·에코파이버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전북지역 소재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농생명·바이오 및 전북형 특화산업 2개 분야로 나누어 모집하였으며, 서류심사와 공개 발표평가를 통

해 우수기업 20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이 함께 참석하여 창업콘테스트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진단과 기업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되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에는 창업아이템 제품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기업당 12,000만원 한도)지원과 1:1 멘토링 연계가 제공되며, 특화역량 보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마케팅,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의 후속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수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창업 1번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북형 창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23일 '2024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20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육프로그램 추진과 창업소외지역 선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한농공 무진장지사, 천천저수지 재해대비 대처 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장수군,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협력업체 합동 대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23일 장수군 천천저수지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은 장수지역에 강력한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자연재난 및 돌발 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대처 및 보고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복구조치를 통한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재해 발생 시 상호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는 장수군 안전·재난 관련 직원들과 함께하는 도상훈련, 장수소방서 119 구급차 협조 부상자 구



조훈련, 협력업체 중장비 및 지사 응급복구 장비가 동원되는 응급복구훈련, 장수경찰서 협조 차량 및 주민 통제 훈련, 지역주민 대피훈련 등을 가상해 훈련을 진행했다.

오재준 지사장은 "훈련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지사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도상훈련, 장수소방서 119 구급차 협조 부상자 구

/장수=교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